『항해기』 다시쓰기: 「베니토 세레노」에 나타난 인종주의연구

김 채 남

차 례

Ⅰ. 서론
Ⅱ. 델라노와 돈 베니토의 인종편견
Ⅲ. 바보와 노예반란: 보이지 않는 사람들
Ⅳ. 결론

Ⅰ. 서론

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이 반 노예제도에 앞장섰던 잡지였던 퍼트남(Putnam)지에 연재했던 중편소설 「베니토 세레노」 ("Benito Cereno")[1]는 선텍스트(pre-text)를 '다시쓰기'를 통하여 노예제도와 사회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투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저자는 「베니토 세레노」에서 백인우월주의와 노예제도가 신세계에 유입된 과정, 법률제도의 모순, 노예 반란의 확대로 인한 미국인의 불안과 공포의 실체를 다시쓰기를 통해 다각도로 보여준다. 멜빌이 호손(Hawthorne)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그의 창작활동의 주된 관심은 사실기록에 살을 붙여서 다시 쓰는 일이다(Kaplan 37). 이것은 멜빌이 사실/허구의 관계, 다시 말하면 기록된 사실을 허구화하여 인간을 짓누르는 억압의 실체와 진실을 탐구하는 글쓰기에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초기작인 『타이피』(*Typee*)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실기록을 선텍스트로 한 다시쓰기의

1) Herman Melville, *Billy Budd, Sailor & Other Stories* (New York: Penguin Books, 1980). 앞으로 나오는 본문의 인용은 이 판에 의거하여 쪽수만 기입하기로 한다.

산물이란 점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멜빌이 선텍스트를 다시쓰는 목적은 상호텍스트적인 자의식을 통하여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인간성의 진실을 성찰하려는 것이다. 멜빌은 여행기, 법정기록물등 사실의 기록을 언어적 인공물로서 기록자의 주관적인식과 편견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상징의 복합체(White 88)로 인식한다. 『모비딕』(*Moby-Dick*)을 비롯한 그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절대적이고 객관적 진리에 대한 회의와 '포착할 수 없는 삶의 환영'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도 모든 사실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작가의식의 발로이다. 따라서 다시쓰기의 산물인 멜빌의 후텍스트(post-text)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의 한계와 사실기록물에 관한 회의, 재현자체의 진실성을 자문하는 자아 반영적 특징을 지니게 되며, 「베니토 세레노」 역시 저자의 선텍스트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과 자의식이 스며있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니토 세레노」는 1817년 보스톤에서 출간된 아마사 델라노(Amasa Delano) 선장의 『항해기』(*A Narrative of Voyages and Travels*)를 선텍스트로 해서 쓰여진 작품이다. 「베니토 세레노」는 처음에는 멜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1928년 헤롤드 스커더(Harold Scudder)가 델라노 선장의 『항해기』를 발굴하면서 상호 관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델라노 선장의 『항해기』는 48세인 메사추세츠 출신의 델라노 선장이 태평양과 동방의 섬을 실제로 항해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그 중 「베니토 세레노」의 원전이 된 제18장은, 델라노 선장 자신의 체험담과 1799년 산 도밍고(Santo Domingo) 섬에서 벌어진 흑인노예 반란사건, 페루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 공술서로 구성되어 있다. 멜빌이 『항해기』에 주목한 이유는 기록자인 미국인 선장 델라노의 인종편견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기록이 내포하고 있는 인종주의가 종국에는 인간성 상실로 고착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멜빌은 「베니토 세레노」에서 『항해기』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이야기를 모두 세부분으로 구성한다. 1부는 델라노 선장의 관점에서 본 산 도미니크호(San Dominick)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2부는 재판기록을 발췌 인용하고, 3부에서는 항해기에는 다루고 있지 않은 델라노와 세레노 선장의 대화

내용을 창작해서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3부에서 이들 두 사람은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술순서상 2부의 재판기록 앞 쪽에 위치해야 순서가 맞다. 멜빌이 이렇듯 선텍스트와 달리 서술순서를 와해시키는 형식상의 실험기법을 차용하는 것은 지배질서의 경직성을 해체하는 시도의 일환일 뿐 아니라, 독자와 대화적 관계를 통해 끊임없는 의미의 생성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베니토 세레노」는 종교와 동물이미지와 모티프로 가득 찬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에피소드들은 델라노 선장의 관점, 법정 진술을 하는 돈 베니토의 관점이 뒤섞여 의미의 결이 상호 교차되어 있다. 이런 복합적인 장치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영과도 같은 흰 고래처럼 비결정성과 주변성, 다의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일원적인 지배담론을 위협하는 전복적인 잠재성을 지닌다.

멜빌이 활동하던 19세기 미국사회는 북위 54도를 기준점으로 한 영토 확장문제, 노예문제,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 변경과 도시의 폭력문제가 난립하던 시대일 뿐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미국적인 것'을 확립하자는 국민적 열망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실현과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미국인의 꿈은 정신적 이상주의와 경제적 기회주의가 서로 갈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순과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일례로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을 깨닫고 이를 청산하려고 노력했던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역설했던 미국에서는 오히려 노예제도가 합법화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낙원을 건설하고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는 아담적인 이상의 이면에는 이처럼 인간성과 상반되는 모순과 이중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베니토 세레노」는 흑인은 누구인가? 흑인은 과연 백인보다 열등한 운명을 타고났는가? 재판기록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법률제도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등의 무수한 질문을 던지며 미국인의 내면에 도사린 어둠과 표리부동을 고발한다.

이 작품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베니토 세레노」가 당대 미국사회의 인종주의를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작임을 보여준다. 가령, 산드라 자가렐(Sandra Zagarell)은 이 작품을 노예제도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아메리칸 헤게

모니를 폭로하는 일종의 고발문학으로 보았고(254), 대부분의 평자는 타자인 흑인의 목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멜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드니 카플란은 저자가 표면적으로는 인종주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흑인노예반란을 잔혹한 해적 떼들의 만행과 같은 것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백인들의 우월성과 지배논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46). 작가가 인종주의를 은연중 강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저자가 노예반란이란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이 집중된다. 그들은 작품이 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쓰여진 역사기록을 선텍스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구화한 텍스트자체도 필연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가 매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저자가 델라노선장과 반란 주동자 바보(Babo)의 형상화를 통해 흑인저항의 의의보다는 백인의 지배를 암묵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작품이 미국의 도덕성이 타락한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란 점과, 무엇보다 멜빌이 당대 미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는 입장에서 글을 써왔다고 보기 때문에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미적 애매성이 있는 것으로 작품을 해석하기보다 멜빌이 작품의 뼈대가 된『항해기』에서 무엇을 차용하고 변용시켰는가를 추적하여 그의 인종주의 서술전략을 해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항해기』와「베니토 세레노」의 시대배경, 선박명, 델라노선장, 돈 베니토와 바보 및 법정기록의 간극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멜빌이 당대의 시대담론을 얼마나 수용 혹은 거리감을 둔 전략으로 작품을 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목적이다.

II. 델라노 선장과 돈 베니토의 인종편견

선텍스트인 델라노 선장의『항해기』가 출간된 19세기 초반(1817년)은 1812년 미영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발전과 팽창주의가 점차 활발해질 뿐 아니라, 노예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치문제화 되던 시기였다(이주영 87-99). 따라서 델라노 선장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 항해기를 썼다고 볼 수 없을 지

라도 당시 미국의 역사적 정황이 반영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필자가 살펴보려하는 이 항해기 18장도 다른 항해문학의 주요 모티브의 하나인 타자(스페인인과 흑인)에 대한 델라노 선장의 우월감과 상대적 배타주의가 드러나 있다.

미상선 퍼시비어런스호(Perseverance)의 선장 델라노는 자신의 『항해기』제일 앞부분에, 트라이얼호에 함께 승선하여 선상 사건을 모두 목격한 선원 루터(Luther)의 항해일지를 실어 자신의 진술이 명백한 사실임을 주지시킨다. 항해일지에는 칠레연안의 무인도 산타 마리아(St. Maria)섬에 정박해 있던 퍼시비어런스호가 근처에 정박해있던 트라이얼호를 발견한 후,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델라노 선장은 정박한 배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자, 이유를 알기위해 루터와 트라이얼호를 방문한다. 하지만 스페인 노예무역선인 이 배에 한 나절이나 머물면서도 흑인노예반란이 은폐 위장된 실상을 모르고 있다가, 선장 돈 베니토가 탈출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델라노는 돈 베니토와 힘을 합쳐 노예들로부터 트라이얼호를 재탈환한다. 하지만 항해일지 기록 뒤에 적힌 델라노의 진술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재판과정과 돈 베니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후텍스트인 「베니토 세레노」는 『항해기』의 내용을 작품의 뼈대로 그대로 반영하지만, 델라노와 돈 베니토의 인간성이 원전과는 전혀 상이한 인물들로 그려진 점, 반란의 주모자인 흑인 노예 바보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점, 항해기의 재판기록내용의 상당부분을 삭제하고 돈 베니토의 법정진술부분만을 차용한 점등은 선 텍스트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피소드와 상징적 이미지를 소설에서 창작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항해기』의 실존인물들의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는 반면, 시대 배경과 선박이름은 달라져있다. 시대배경은 1805년에서 1799년으로, 노예 무역선 이름은 트라이얼호에서 산 도미니크호로, 미국 무역선 이름은 퍼시비어런스호에서 베철러즈 딜라이트(Bachelor's Delight)호로 각각 바뀌었다. 보편적으로 선박은 국가, 현실 세계, 소우주등을 은유하는 공간임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은 변용된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미국, 미국사회, 나아가 단선적인 서구문명에 관한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베니토 세레노」의 산 도미니크호는 산 도밍고(Santo Domingo)라는 지명을 연상시킨다. 산 도밍고 섬은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할 당시 히스파니올라(Hispaniola)라고 지은 섬으로 최초로 스페인 식민지가 된 곳이다. 또 이 섬은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5세의 명령으로 노동력 투입의 명분하에 흑인 노예무역이 시도된 후, 1790년대에 흑인 반란이 일어나 성공한 섬이기도 하다(Charles Berryman 103-104). 따라서 멜빌이 시대 배경과 선박 이름을 바꾼 이유는 백인들에게 산 도밍고섬의 노예반란을 산 도미니크호의 그것과 연관시켜 당시 미국 사회의 노예문제를 드러내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 도미니크호는 때로 잔혹한 종교재판을 행하기도 했던 도미니크회를 떠오르게 하며, 이와 유사한 종교이미저리가 작품곳곳에 암시되어있다. 가령 델라노 선장에게 낯선 범선 산 도미니크호의 외양은 "뇌우가 스쳐간 뒤의 새하얗게 씻긴 수도원"(217)같은 모습이어서 한순간 현창을 통해 보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수도원 회랑을 왔다 갔다 하는 도미니크회의 수사들 같다"(217). 그런가 하면 바보의 지시로 돈 베니토가 면도를 하기위해 앉아 있는 의자는 "이단 심문관의 고문대"나 "무시무시한 형틀"(219)로 보인다. 이처럼 종교이미저리가 많은 이유는 흑인노예들에게 도미니크회 수사이미지를 투영시켜 그들의 잔인함을 암시할 뿐 아니라,백인들이 흑인에게 행했던 억압과 폭력에 대한 인과응보를 은유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시대 배경과 선박이름의 암시와 더불어, 멜빌이 미국인 선장 델라노를 차용하고 있는 방식도 주목된다. 이야기가 미국인 델라노 선장의 관점으로 굴절되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 델라노의 역할은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델라노를 통해 독자는 당대 미국사회의 사회체제 실상을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동시에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을 파악할 수 있다. 해양연구가 모리슨(Morison)에 의하면 실제의 델라노는 멜빌이 그리고 있는 소설속의 델라노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소설 속의 델라노가 관대하고 낙천적이며 자애를 베푸는 인물인 반면, 실제의 델라노는 대영제국 유배지의 한 전과자와 결탁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다(Putzel 194). 『항해기』에서 델라노는 "내가 이익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일"(351)이란 말을 공공연히 되풀이하여, 스스로가 탐욕과 이중성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준다. 멜빌이 실제의

델라노를 자비심많고 선량한 델라노로 미화시켜 역사적 사실을 가리는 이유도 그를 통해 피지배자에 대한 정치지배와 경제적 이익추구의 본심을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 위장해온 당대의 사회의 위선을 고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소설 속의 델라노는 산 도미니크호에서 벌어지는 흑인 노예들의 음모와 계략을 대면하고도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는, 인식상의 결함[2]을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돈 베니토의 법정진술에서 보듯 이러한 "악을 탐지할 수 없었던 그의 너그러운 마음씨와 깊은 신심"(287) 때문에 역설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작품 서두에서 멜빌은 3인칭 화자를 빌어 델라노의 인식상의 한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암시하고 있다.

> 그러나 그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온후한 인물이었으며, 되풀이해서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아니 설령 그런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의식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혼자 공포감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인간 능력이란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특성은 자비심과 함께 남달리 빠르고 정확한 지각력을 암시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현자의 판단에 맡겨도 될 것이다. (215)

---

2) 델라노 선장의 배 이름 베철러스 딜라이트호도 그의 인식상의 결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배 이름은 『모비딕』 (*Moby-Dick*)에서 에이합(Abab)선장이 우연히 만난 아홉 척의 배중 두 척의 이름을 합성한 것이다. 베철러(Bachelor)호는 에이합선장이 만 난 일곱 번 째 배로 고래고기와 기름을 싣고 귀항하는 중이었다. 이 배의 선장은 에이합선장이 흰고래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흰고래란 존재는 없다고 일축한다. 우주의 불가해한 현상, 삶의 신비와 복잡성에 대처하거나, 이해성이 부족한 이 배의 선장은 미국의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점에서, 비슷한 인식상의 한계를 보이는 델라노 선장과 유사하다. 딜라이트(Delight)호는 에이합선장이 만난 아홉 번째 배로 흰고래 모비딕에게 공격을 당해 선원을 거의 잃고 표류중이었다. 이 배가 흰고래 때문에 곤란을 겪은 상황은 돈 베니토 선장이 흑인노예들 때문에 파멸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결국 두 배의 이름을 합성한 베철러스 딜라이트호는 다의성, 비결정성을 지닌 인간 삶의 본질과, 인간의 인식 태도의 한계, 닥쳐올 사건의 어두운 결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Putzel 198).

인간에 내재된 악의 성향을 믿지 않으려는 델라노의 인간관은 그의l 대형 무역선이 산타 마리아섬에 정박해있던 중, 이틀 후 만 안에 닻을 내린 산 도미니크호를 발견하는 장면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델라노는 스페인 노예무역선에 뱃사람들의 관례인 깃발이 달려 있지 않은 점과 갑판에 백인보다 흑인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두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고도 단순히 그 배가 난파선이어서 그렇다고 추측할 뿐이다. 도움을 주려고 생선바구니를 들고 승선했을 때, 눈 앞에 펼쳐진 선원들의 혼란스런 모습과 규율위반, 거칠고 무례한 행동을 선상의 규율을 맡길만한 하급 갑판원이 없는 탓으로 돌린다. 델라노의 무신경함은 흑인노예들에 대한 그의 경계심 없는 태도에도 드러난다. 델라노는 갑판장이 없는 갑판에 족쇄도 차지 않은 흑인노예들이 점거하고 있는 것, 녹슨 도끼를 벽돌조각으로 열심히 갈고 있는 것, 바보가 돈 베니토 옆을 떠나지 않고 충복노릇을 하는 것등 흑인들이 벌이는 태연자약한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한다(250). 반란주모자 바보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돈 베니토가 "병적으로 과민해 보이고"(250)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이 빠져있는 이유도 산 도미니크호가 겪은 자연재해의 불운 탓으로 단정지을 뿐이다. 델라노는 산 도미니크호를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218) 부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오히려 돈 베니토가 자신의 배를 약탈하려는 책략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떠올린다. 하지만 델라노는 스페인인 선장이 지어낸 장기간의 표류, 바다에서의 고난, 선원들의 비극에 잠시 의혹을 품긴하지만 특유의 너그러움과 남을 잘 믿는 성격으로 곧 의심을 풀어버린다.

> 마침내 그는 조금 전까지 하던 지나친 여러생각들을 웃어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어쩐지 그 외양만으로도 그런 지나친 생각을 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준 그 외국선에 대해 웃고 또 묘하게 생긴 흑인들, 특히 저 아샨티 사람같은 도끼가는 노인들, 바닥에 앉아 뜨개질하는 노파들, 뱃밥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저 음울한 스페인 선장 바로 그 사람까지도 웃어넘겼다. (245)

위 인용문에서 보듯 우리는 델라노가 노예반란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매사를 선의로 해석하는 단순함 때문이며, 그 단순함의 이면에는

흑인에 관한 뿌리깊은 인종적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델라노에게 흑인은 시종일관 "기묘한 잡종동물"이고, "뉴 펀들랜드 개"이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암사슴"일 뿐이다(247-248). 이러한 그의 인식저변에는 흑인을 동물로 비하시키는 인종적 위계질서가 고착되어있다. 흑인은 동물이기때문에 지능이 모자란다는 편견을 지닌 델라노에게 노예반란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 배와 멀리 떨어져 혼자 산 도미니크호의 갑판에 있으면서도 흑인들에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바보를 충실한 하인으로 착각하여 돈 베니토에게 50 더불론이란 저렴한 가격에 흥정해서 사겠다고 제의하는 태도나, 백인선원들에게는 빵과 설탕을, 흑인들에게는 시들어 빠진 호박을 주는 차별적인 태도도 그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예이다. 나중에 돈 베니토의 탈출로 이 모든 음모가 흑인들의 용의주도한 계략임을 알았을 때도 델라노는 흑인들을 '악을 저지르는 무리'라고 단정지을 뿐, 더 이상의 인식의 전환을 보이지 않는다.

델라노가 선상에서 거친 흑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또 한가지 이유는 미국인 특유의 낙관주의와 자신감, 그리고 신앙심 때문이다. 그는 아투팔이 매복하고 있는 상황이나 도끼가는 위협적인 흑인들을 목격할 때마다 "누가 감히 이 아마사 델라노를 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양심은 깨끗하다. 저 위에는 하느님이 계신다."(256)고 호언하며 상황을 무시해버린다. 델라노의 자신감은 휘트만식의 낙천주의와 자기 신뢰뿐 아니라 청교주의의 자기 도착적인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순진하고 선량하고 낙천적인 델라노의 성격적 특징은 당시 미국인들이 유럽인들과 자신들을 대비시키며 강조한 아메리칸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멜빌이 델라노를 포용심과 관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형상화한이유도, 노예제도의 죄악을 청교주의의 도그마로 숨기려하는 미국사회의 표리부동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청교주의는 흑인을 탄생할 때부터 악을 지닌 존재로 보고, 흑인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시킨다. 특히 남부인들이 신봉하는 신은 '자비의 신'이 아닌 '분노의 신'으로 구약성서의 규율은 인간에게 추호의 자비도 용서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선악만을 심판하는 신을 섬기는 남부의 교회는 '구원'보다는 죄인을 벌주기 위해 존재했다. 따라서 흑인들은 신에게서 노예의 운명을 부여받았으

므로. 이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백인들은 흑인을 지배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음으로써 인종주의를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플란테이션 농업의 어려운 실상을 강조하며 도덕적 선택의 어려움을 변호하였으며 그런 상황 하에서 노예제도가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인도제도에서 영국이 1833년에, 프랑스가 1848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데 비하여, 미국이 1850년에도 인구의 1/6이 노예로 남아있는 모순은 당시의 미국사회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이주영 146-47). 결과적으로 멜빌이 경제이익 추구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실제의 델라노를 감추고, 자비심 많은 인물로 미화하여 묘사한 이유는 그 자비심의 이면에 감추어져있는 왜곡된 타자 인식을 고발하고 미국사회가 품고 있는 위선과 이중성을 통찰한 결과인 것이다.

멜빌이 차용한 인물가운데 가장 변용이 심한 사람은 스페인인 선장 돈 베니토이다. 돈 베니토는 시종일관 델라노의 관찰의 대상이었다가 작품 후반의 법정진술의 증인으로 출석하고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소설 속의 돈 베니토가 "남부의 햄릿," "슬픔에 차있는 사람," "종교적인 인물"등으로 고상하게 그려져 있다는 평자의 시각(Karcher 136)도 있지만, 실제의 돈 베니토는 약삭빠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인물이다. 『항해기』에서 델라노 선장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돈 베니토는 노예들이 반란으로 탈취한 자신의 배 트라이럴호를 델라노 선장이 재탈환해주면 배의 절반을 사례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돈 베니토는 오히려 델라노의 퍼시비어런스호 소속 선원이었던 다섯 명의 전과자를 회유하여 델라노가 자신의 배를 약탈하려했다는 위증을 하도록 꾸미는 약삭빠르고 배은망덕한 인물이다. 약속 위반죄목으로 징수된 벌금 8,000달러도 내지 않아 지하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Narrative* 329-30). 그러나 멜빌이 형상화한 돈 베니토는 이처럼 교활하고 뻔뻔한 인물과 다르다. 소설 속에서 돈 베니토는 진취적이고 활동범위가 넓은 무역상중의 하나이며 귀족출신인 스물아홉정도의 젊은이로 그려진다. 델라노 선장의 눈에 비친 돈 베니토의 모습은 배 전체를 덮고 있는 병적인 분위기와 고뇌를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돈 베니토는 인질상태가 가져다준 극도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 때문에 "고통에 시달려 피골

이 상접"(222)하고, 반 미치광이며 "음울한 무기력"(222)에 빠져있다. 그리고 바보의 지시대로 델라노 선장에게 산 도미니크호의 상황을 위장하며, 겁에 질려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것은, 하느님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바보 덕분입니다."(231)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실신을 반복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극도의 피폐함을 보여주는 그의 심리상태가 단순히 생명의 위협때문만은 아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리마 법정에 선서증인으로 출두한 돈 베니토는 바보를 병적으로 두려워한다.. "바보는 발에 족쇄가 채워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창에 들어가 리마로 보내졌다. 그 항해 중에 돈 베니토는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때도 그 후에도, 그는 그 흑인과 절대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까지도 대면하기를 거부했다. 판사에게 강권을 당했을 때 그는 실신해 버렸다. 법률에 의한 인정 신문은 선원들의 증언으로만 끝을 맺었다"(312). 바보의 사형집행 후 얼마 안있어 돈 베니토는 결국 심신의 충격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델라노와 돈 베니토와의 대화에서 그의 영혼을 질식시켜 죽음까지 몰고 간 충격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돈 베니토,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무엇 때문에 의미를 찾아내려고 합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보세요, 저 태양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푸른바다도 푸른 하늘도 모든 걸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
> "그것들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하고 풀죽은 태도로 그는 대답했다.
>
> "당신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당신의 마음에 그림자를 던져주나요?"
>
> "검둥이요." (306)

흑인노예 반란사건, 특히 '검둥이'인 바보의 위협과 계략은 돈 베니토의 영혼에 소름끼치는 악몽과 어두운 그림자를 각인시켰던 것이다. 노예 반란이 평정된 후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델라노선장과 달리 돈 베니토의 의식은 끔찍한 '과거'에 멈춰있다. 그 과거는 '검둥이'들의 반란에 관한 기억으로 좀체로

떨쳐버릴 수 없는 어두운 악몽이다. 하지만 돈 베니토는 자신의 의식 속에 순종적이고 우매한 동물로 각인되어있는 '검둥이'의 '악'과 '음모'와 대면한 순간에도 이것이 백인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응분의 결과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반란에 맞서 철저한 응징도 하지 못한다. 백인들의 인간성 상실의 무거운 업고와 죄악상을 깨닫기보다, 검둥이들을 악귀라고 단정하며 영혼의 공포 속에서 노예무역을 단념하고, 수도원에 숨어버린다. 돈 베니토는 법정증언을 한 3개월 후에 바보의 경고를 증명이라도 하듯 "관 위에 누워 그의 두목[아란다 선주]의 뒤를 따랐다"(300). 멜빌은 흑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죽음을 맞이한 돈 베니토의 종말을 통해 결국 노예제도의 죄악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노예반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선주 아란다(Aranda)와 선장 돈 베니토가 흑인은 다루기 쉽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흑인을 지능이 없는 동물이하로 비하시키고 무시하는 인종적 편견 때문이다. 돈 베니토는 노예를 팔아넘기는 무역선장으로서 흑인을 인간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할 뿐이다. 돈 베니토는 말할 때 마다 시종일관 스페인인 승무원은 '사람'으로 흑인들은 '검둥이들'로 구분짓는다. 반란을 일으킨 흑인들의 행위는 "악으로 물든 계략과 위선"(302)때문이지만, 자신은 "순수하며 사람들 중 가장 가련하다."(303)고 합리화한다. 이러한 돈 베니토의 선서증언내용은 한마디로 흑인을 물화시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델라노 선장의 흑인관과 유사하다. 돈 베니토의 목소리는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스페인 식민주의의 언술을 반영하고 있다. 돈 베니토를 하나의 전형으로 부각시키는 비평가들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뉘는 데, 첫째는 그를 흑인노예의 봉기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는 남부 귀족층, 둘째는 부상하는 신흥 제국주의 세력 (미국)앞에 퇴장하는 구세력(스페인)이 그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당대의 팽창주의 언술이 반영되어 있다고 자가렐은 지적하고 있다(249). 따라서 비극적인 체념상태에서 삶에서 물러나고 있는 돈 베니토는 사라져버린 영화를 아쉬워하는 구세계, 구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멜빌은 작품 결말부분에, 『항해기』에는 없는 두 선장의 대화 장면을 삽입하고, 그들의 "따뜻하고, 격의 없는 형제애"(304)를 부각시킨다. 어쩌면

돈 베니토가, 구출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함께 있었고, 함께 서있었고, 함께 앉아 있었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나를 바라보고 음식을 나누었던 당신"(304)인 델라노는 각각 구세계와 신세계를 상징하며 만행으로 얼룩진 그들의 초상이 형제처럼 닮아있다는 암시를 던진다. 멜빌은 구세계는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지만, 그들이 신봉했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거울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신세계의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두 선장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III. 바보와 노예반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멜빌이 역사적 사실/소설의 대조를 통해 두 백인선장이 지닌 인종주의를 고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외된 흑인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있다.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전모가 주로 델라노 선장의 시각과 돈 베니토의 증언을 토대로 서술이 되어있고 주동자 바보의 사형집행으로 작품이 끝나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한 흑인의 목소리는 거대한 익명성속에 가리워져 있다. 이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타자의 억울하고 비참한 삶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은유한 멜빌의 서술전략으로 보인다.

멜빌은 주로 지적으로 열등한 흑인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반란을 주도할 수 있었는 가를 흑인입장에서가 아니라, 돈 베니토의 증언을 통해 밝히고 있다. 멜빌은 『항해기』에서 반란주동자로 기록된 뮤어(Mure)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바보를 중심인물로 탈바꿈시킨다. 『항해기』에서 바보의 원모델인 뮤어의 활약상은 다음 몇 줄로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 검둥이 뮤어는 능력과 재주가 있는 인물로, 겉보기에는 연신 순종하고 굽실거리면서 단 한순간도 선서 증언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순전히 그의 행동과 말을 감시하기 위해서 말이다. (338)

바보에 관한 모티브는 『항해기』의 위 인용문을 뼈대로 하여 몇 가지 에피소

드와 살이 붙여져 상징적인 다의성을 지니게 된다. 멜빌은 그를 중심축으로 한 흑인들의 능수능란한 음모와 연극술과, 잔인한 복수극을 독자들에게 펼쳐 보인다. 그들은 항구를 출발한 7일째 되는 날에,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지 않은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다. 선원 18명을 몽둥이나 도끼로 살해하고, 포박하여 산 채로 바다에 던졌으며, 도끼로 백인선원의 팔을 내려찍어 중상을 입힌다. 바보와 그의 심복 아투팔(Atufal)은 매일 회의를 거듭해, 고향 세네갈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실현시킬 계획을 짠다. 바보의 헌신적인 하인 연기와 뱃밥 만드는 나이든 흑인들의 기민한 통제행위, 그리고 반란자를 가장한 아투팔의 태연자약한 연극은, 흑인은 영혼도 지능도 없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백인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면도장면에서 멜빌은 면도칼을 쥐고 은밀하게 목을 긋는 위협의 제스츄어를 하는 바보와 공포에 질린 돈 베니토를 통해 권력구조의 상대성을 폭로한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델라노가 반란의 단서를 포착해내기보다 "흑인에게서 망나니의 모습을, 백인에게서는 단두대의 사형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익살스러운 상상"(266)만을 하는 단순함을 풍자한다. 스페인 국기를 불경스럽게 턱받이로 사용해 모독하면서도 그것을 "농담"(266)으로 받아 넘기는 바보의 순발력은 델라노가 느낀 대로 그의 "기민한 총명함"(266) 때문이다. 델라노는 바보의 면도칼 앞에서 사지를 벌벌 떨고 있는 돈 베니토를 보면서 "주종간이 바뀐 것"(266)같은 기이한 느낌을 갖는다.

위에서 보듯 멜빌은 흑인들이 조직력과 치밀함으로 반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흑인은 열등하다는 당시의 인종주의를 비판하고 있다(Leslie 292). 인종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1800년 프랑스의 꾸비에르(Cuvier)가 인종의 피부색과 두개골의 크기를 기준으로 인종, 문화의 우열을 나눈 이후부터 학문이란 미명으로 정당화되었다. 1854년 남부의 제이 노트(J.Nott)와 영국인 길돈(Gilddon)의 공저『인류의 유형』(*Types of Mankind*)은 신체, 기능, 기질적측면에서 흑인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코카서스인인 앵글로 색슨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인종 위계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Banton 42-46). 특히 칼 보그(Karl Vogt)같은 두상학자는『인간론』(*Lectures on Man)*에서 "인종의 문화발전은 두개골의 용량과 일치하며, 흑인의 두개골은 가

장 낮은 치수로 나타난다."(Banton 60-61)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 이러한 진화적 생물학적 담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흑인에 대한 편견은 19세기의 진화론이 과학과 지배 권력이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흑인지배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던 것이다.

멜빌의 상상력의 산물인 '선주 아란다(Aranda)사건'도 왜곡된 인종주의의 한 예이다. 『항해기』에서는 선주 아란다가 주동자 뮤어의 지시로 마팅쾌(Matinqui)와 레케(Leche)에 의해 살해되지만, 소설에서는 미이라로 만들어져 배의 이물장식으로 이용된다. 시신을 불태우고 목을 자르는 잔혹함을 두고 몇몇 비평가들이 흑인들의 극악무도함을 강조하려는 멜빌의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Kaplan 287-301) 그것이 아프리카 아샨티(Ashantee)족의 장례풍습임을 생각해본다면(Karcher 191), 필자는 아프리카 문화의 고유성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는 서구의 인종적 편견으로 본다. 레슬리는 아란다의 유골처리가 그 아래 새겨 넣은 "너희들의 두목을 따르게 될 것이다!" (Follow your leader!)의 상징적 문구와 더불어 흑인들의 야만성보다는 오히려 백인들이 그간에 저질러온 야만성을 상기시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297). 노예제도의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 선주 아란다처럼 잔혹하게 보복을 당한다는 경고인 것이다. 하지만 형사재판 후에 사형당하는 바보의 사형방법에서 백인들 역시 잔혹한 야만성을 드러내기는 매한가지다.

> 수개월 후, 노새 등에 실려 교수대로 끌려간 그 흑인은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최후를 마쳤다. 시체는 화장되어 재로 변했다. 하지만 악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개골은 광장의 기둥에 며칠 동안 매달렸다. 그것은 당당하게 백인들의 시선을 견뎌냈다. (307)

바보는 죽어서도 '당당하게' 백인들의 시선을 견뎌낸다. 그는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또 열게 할 수도 없었다. 그 태도는 더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그런 투였다"(307). 바보의 침묵은 백인들의 비인간성에 대한 무언의 저항일 뿐 아니라, 법정에서조차 권리를 주장할 수 없

는 흑인들의 비참한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예제도로 착취당하며 억압당해온 흑인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백인 편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성찰이나 양심도 언급되지 않는다. 오직 돈 베니토의 상세한 증언을 통해 반란흑인들의 무차별한 살육과 잔학상만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멜빌은 끝부분에서 돈 베니토의 선서증언 기록을 실으면서. 바보에 대한 사형판결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법정은 선서 증인[돈 베니토]이 최근의 사건 때문에 정신이상을 일으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증언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렸다. 그러나 그 후에 행해진 생존한 선원들[백인들]의 증언이 몇 개인가의 이상하기 그지없는 세부 문제에 있어 그들의 선장[돈 베니토]이 밝힌 놀라운 폭로사실을 확증시켰으며, 나머지 진술도 신용할 수 있는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법정은 그 최종심에서, 만일 확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각하시켰을 진술에 근거를 두고 바보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289)

노예반란사건을 다루는 이 공문서의 기록에 흑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정은 들것에 실려 와야 할 정도로 심신이 황폐한 돈 베니토의 "두서없는"(276)진술의 진위성 여부를 오로지 백인선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사실로 확정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문서는 오직 백인선주 아란다의 서류에 기록되어있는 50명이 넘는 흑인노예들의 이름, 인상, 연령을 쓴 목록만 게재하고 있을 뿐 사건의 핵심에 근접할 수 있는 흑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호세, 나이는 18,9세정도. 그는 주인 아란다 밑에서 급사로 일했으며 고용된 지 벌써 4,5년이 된다.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세네갈 태생의 체구가 작은 흑인. 나이는 30세 정도로 스페인 사람들과 수년간 같이 생활했다. 이름은 바보...기타 흑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증인[돈 베니토]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란다선주의 나머지 서류가 발견되기만 하면 거기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들 모두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붙여 법정에 제출하고 싶다고 백인선원들은 진술했다"(290). 흑인은 서류상의 목록으로만 존재하고 법집행인과 진술인이 모두 백인일 뿐인 상황에서 우리는 법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선서증언기록은 인간사회의 가치체계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기존의 지배구조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의 한 요소(Althusser 132-58)에 불과함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사랑, 구원, 죽음 등 인간 삶의 갈등을 다루는 법의 '인간적인 얼굴'은 어디서도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사회질서유지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타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지배담론에 봉사하는 1850년대 미국[3]의 법체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멜빌에게 당대 미국사회의 법은 소외된 진실을 발굴하기 보다 국가 지배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인종주의를 오히려 강화할 뿐 흑백간의 진정한 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선텍스트인 델라노선장의 『항해기』가 차용, 변용되는 과정에서 「베니토 세레노」에 당시의 노예제도, 사회제도에 대한 저자의 의식이 스며있음을 보았다. 상호텍스트에서 보여지는 시대배경과 선박이름의 변형, 델라노선장과 돈 베니토의 실존인물과의 간극이, 객관적 진실을 전제로 하는 사실기록이 기록자의 인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자각과, 진실의 성찰을 가능하게 함을 보았다. 그리고 델라노선장과 돈 베니토, 법정기록이 팽창주의를 기조로 한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 즉 '백인들의 거짓'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두 백인선장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인종주의는 "우리 백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아프리카인의 피와 섞이면 흑인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고사하고 황산을 검은 물

4)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10년전인 1850년대 미국은 증기선, 철도등 교통혁명,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등 '공동 사회'(Gemains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haft)로 옮겨가는 시기였다. 금주운동, 노동운동, 의무교육 실시등 사회개혁운동도 활발한 가운데 노예제폐지 주장도 있었지만, 영국에 면화를 수출하기 위한 노동력확보 명분으로 남부의 노예제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남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주로 도망간 노예는 반드시 송환해야한다는 노예 송환법(Fugitive Slave Act)은 미국의 모든 연방이 승인한 법률안으로 '1850년의 타협' (Compromise-50)으로 불리며, 이것은 미국인의 이중성과 법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이주영 152-53).

에 타는 것과 같은 슬픈 결과를 초래"(300)한다고 말하는 소설 속 델라노 선장의 의식에서 보듯, 나르시즘적인 오만과 인간성의 슬픔마저 느끼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이데올로기의 위선과 모순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사회체제라는 감옥 속에 갇힌 수인들이다. 작가는 이처럼 노예제도가 '제도'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내면에 암 덩어리처럼 증식하여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역사기록을 허구화하는 멜빌의 자의식적 태도는 지배체제에 이중성에 저항하면서, 한편으로는 체제 내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여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역사와 허구의 경계선 허물기, 역사는 허구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거리를 두고 보는 것으로서, 어떤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율적 비판의식과 개인의 존재양식에 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백인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 이야기도 백인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어져 있으며, 흑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베니토 세레노」가 인종주의을 옹호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멜빌이 노예제도라는 사회악을 거울처럼 생생히 재현하여 독자의 비판의식을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작품이 표면적으로 인종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이유를 굳이 언급한다면, 문학 텍스트가 당대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향화할 수 밖에 없는 장르라는 점과, 저자가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저자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멜빌은 선텍스트를 '다시쓰기'를 통하여 전체주의적으로 규범화된 사회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글쓰기는 흑인, 피지배자등 주변으로 밀려난 타자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여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절대담론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도구화된 인간의 존재양식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진다. 멜빌이 보여주는 상호 텍스트간의 간극은 우리에게 객관적 진실의 유효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자신의 인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강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성을 말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수사적인 장치인 것이다.

인 용 문 헌

반성완. 『루카치와 바흐찐의 소설이론의 비교연구』. 『인문논총 』 21. 서울: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991.

레이먼 셀던. 『현대문학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이주영. 『미국사』.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 1971.

Banton, Michael. *Racial Theories.* Cambridge: Cambridge UP, 1990.

Barthes, Roland. *The Pleasure of the Text*. Trans. Richard Miller. New York: Hill and Wang, 1975.

Berryman, Charles. "*Benito Cereno* and the Black Friars." *American Literature* 1B (Autumn 1990): 98-109.

Delano, Amasa. *A Narrative of Voyages and Travels.* Boston: The Newberry Library, 1817.

Feltenstein, Rosalie. "Melville's *Benito Cereno*". *AL* 19.3 (Nov. 1947): 245-55.

Fogle, Richard Harter, "Benito Cereno". *Melvill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ichard Chase.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2.

Kaplan, Sidney. "Herman Melville and the American National Sin: The Meaning of 'Benito Cereno'." *Critical Essays On Herman Melville's "Beneto Cereno*" Ed. Robert Burkholder. New York: G.K. Hall, 1992.

Karcher, Carlolyn L. "Darkening Shadows of Doom in *The Encantadas, Benito Cereno, and The Bell Tower*." *Shadow Over the Promised Land: Slavery, Race, and Violence in Melville's America.* Ban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80.

Kristeva, Julia. *Desire in Language: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Oxford: Columbia UP, 1984.

Leslie, Joshua & Stuckey & Sterling. "The Death of Benito Cereno: A Reading of Herman Melville on Slavery." *Journal of Negro History* 67.4 (Winter 1982): 287-301.

Mattiessen, F.O. *American Renaissance:Art and Express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 London: Oxford UP, 1979.

Melville, Herman. *Billy Budd, Sailor & Other Stories,* New York: Penguin, 1980.

Plett, Heinrich F. *Intertextuality,*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Putzel, Max. "The Source and the Symbols of Melville's *Benito Cereno*." *AL* 34.2 (May 1962): 191-206.

Reising, Russell J. *The Unusable Past*. New York: Methuen, 1986.

Weiner, Susan. "Benito Cereno and the Failure of Law." *Arizona Quarterly* 47.2 (Summer 1991): 1-28.

White Hayden. "The Historical Text As Literary Artifact." *Tropics of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P, 1990.

Wilson, Rob. "Producting American Selves: The Form of American Biography." *Contesting the Subject: Essays in the Postmodern Theory and Practice of Biography and Biographical Criticism*. Ed. William Epstein. West Lafayette: Purdue UP, 1991.

Zagarell, Sandra A. "Reenvisioning America: Melville's 'Beneto Cereno'." *Critical Essays on Herman Melville's "Benito Cereno.*" New York: B K Hall,

Abstract

Rewriting *A Narrative of Voyages & Travels* : A Study of Racism in "Benito Cereno"

Kim, ChaeNam

Throughout his career, Herman Melville has been recognized as a writer to attempt to wrestle with the impending issues of solving the racism and other social corruptions in the 19th century American society. The most remarkable thing we should note on Melville's works is to figure out his rhetorical efforts to rewrite a pre-text such as a historical fact into a polyphonic post-text. We may say that his novel is one of the most dialogical texts in which Melville's attempt at overcoming any monologism is successfully achieved. This essay will focus on the author's rhetorical strategy of rewriting Amasa Delano's *A Narrative of Voyages and Travel*s (1817) into his novel, *Beneto Cereno.(1855)*

In analyzing his novel with aesthetic distance we can find out two white captains, Delano and Don Benito. Optimistic, self-confident, and generous, Delano represents an Americanness which differentiates from the Old World suffering from the failures of hegemony. He also reflects the 19th American Ideology that their Manifest Destiny is to indulge in Expansionism, which is penetrated deeply in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The Spanish captain, Don Benito's racial prejudice also results in economic exploitation and oppression to the black people. The mutiny leader, Babo, and other black slaves on the ship resist but only to fail against the unjust social structure. As a symbol of conflicts in human life, the law, instead of realizing justice, doesn't give any fair judgment, only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hite's ideology.

Melville's experiments with narrative forms and rhetorical interests in social and political range reveal a firm challenge to the rigid ideology, and thereby enable a radical perspective. Melville's text which stresses the process of signification by itself undermines the repressive enforcement of dominant social system. The deconstruction of its meaning seems to deny the closure of the restricted text, and to speak of the truth beyond non-human social system.

Key words: pre-text, post-text, rewrite, Delano, Don Benito, Babo, racism
선텍스트, 후텍스트, 다시쓰기, 델라노, 돈 베니토, 바보, 인종주의

논문접수일: 2012. 11. 05
심사완료일: 2012. 12. 10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김채남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소: (139-798)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신안 동진 아파트 103동 903호
이메일: kkccnn3579@daum.net